지리산 일원, '화엄 축제'로 장엄되다

구례 화엄사, 10월 6~8일 화엄제
'시민 함께하는 천년고찰' 슬로건
괘불재, 음악회 등 문화행사 '다채'
화엄사 굿즈 '비건버거' 시식행사도

양행선 광주전남시자장


구례 화엄사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문화축제의 향연을 선보였다.

시민의 품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화엄축제가 지리산을 품은 산사에서 펼쳐졌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화엄사와 지리산에 속한 천년고찰 등에서 '천년의 화엄, 전법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화려한 문화축제의 향연을 선보였다.

이번 축제는 화엄사의 새로운 전법 의지를 담아 '친절한 불교', '시민들과 함께하는 천년사찰'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명상순례와 함께 즐기는 화엄음악제가 행사의 백미로 꼽힌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이번 화엄문화제는 천년의 전통문화를 간직해 온 사찰이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화엄사를 비롯한 우리 교구는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6일 축제의 첫 시작을 알린 사찰명상 순례길 체험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사성암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해 최근 '꽃스님'으로 화제가 되는 범정 스님을 포함,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깎아지른 절벽과 4인(원효 · 도선 · 진각 · 의상) 성인의 수행처로 알려진 사성암 주차장에서 시작해 섬진강 길을 따라 두꺼비다리, 대숲길, 문척교를 지나 6.9km의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1년에 한 번 괘불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국보 301호 화엄사 영산회괘불이운과 괘불재는 불교예술의 장엄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높이 12m에 이르는 화엄사 영산회괘불탱화는 그 크기의 장대함과 균형 잡힌 형태, 밝고 선명하며 다양한 색채, 치밀하고 화려한 꽃무늬 장식 따위에서 17세기 대형 불화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최고의 문화재이다. 이에 더해 조계종 어산종장 동환 스님이 집전한 작법의식은 불교의 무용, 음악, 독특한 의식이 함축된 불교의 종합예술이었다.

작은 음악회에서는 연성 스님과 해덕 스님의 사물 시연으로 시작해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소프라노 김주연, 테너 신상근, 바이올리니스트 김소정, 첼리스트 박건우의 아름다운 선율을 참가자들에게 전했다. 특히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 90여 명은 처음 경험하는 불교의식의 장엄함에 매료됐다.

괘불은 이날만 공개되고 이후 2일간은 모사품으로 교체돼 행사를 이어갔다.

둘째 날 화엄음악회는 행사의 백미로 꼽혔다. 해가 지고 화려한 경관조명이 대웅전과 각황전을 비추며, 화엄사의 사물(운판, 법고, 목어, 범종) 의식으로 시작한 음악회는 기존 화엄음악제와 다른 친근한 공연자들로 구성됐다. 시민들에게 편안한 사찰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화엄사의 변화된 모습이다.

대금 이상현, 인도 전통무용, 비파 노장청, 정가 하윤주, 소리꾼 장사익과 상월청년합창단, 상월비보이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화엄사의 문화적 가치와 최근 야간 개방행사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화엄사는 최근 화엄사의 브랜드를 갖춘 굿즈 개발과 시연행사, 김경호 사경장의 기획전 '법사리 展', 한국불교미술연구원의 '불화 회원전' 등을 함께 열며 한국불교문화를 선도해 가는 사찰의 위상을 확인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치유의 숲길,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을 걷는 행사로, 화엄사에서 연기암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통해 마무리됐다. 지리산 암자 순례길은 화엄사 계곡을 따라 녹음이 짙은 숲속과 계곡 물소리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구충암, 금정암, 내원암, 청계암을 통해 연기암에 이르는 총 2.1km코스다.

화엄문화제는 시민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전법의 길'을 열어가는 화엄사만의 길이 될 전망이다.

태고총림 선암사 제32세 주지 승범 스님 취임

선암사, 10월 10일 진산식 봉행
"교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약속



선암사는 10월 1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32세 주지 승범 스님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 선암사 주지에 승범 스님이 취임했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승범)는 10월 1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32세 주지 승범 스님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중앙원로의원 금용, 남파, 설봉, 지현, 관정, 현호, 구하 스님 등 종단의 원로스님들과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광주전남 원로의장 금영 스님,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 전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 종무원장과 선암사 사부대중, 그리고 전남도 동부청사 정찬균, 순천시 유현호 부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해 주지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승범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선암사는 근현대 한국불교 역사의 흐름에서 태고종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 요동쳤던 법난의 질곡 속에서도 종단의 뿌리이자 근본 도량으로 묵묵히 부종수교의 역할을 다해 왔고, 태고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종단으로 정혜쌍수 · 이사무애의 대승사상과 성불도생의 종승을 선양하는데도 선암사는 항상 그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 모든 사업이 주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다. 앞으로 주지 승범 스님과 집행부에 힘과 원력을 함께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

승범 스님은 "선암사는 수행 도량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불교의 문화와 역사, 건축 등을 담은 한국 최고의 사찰로, 많은 분에게 몸과 마음의 힐링을 주고 있다"며 "제가 32세 주지 소임을 맡아 역대 이어 온 수행정진 가풍을 계승하고, 총림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승범 스님은 이날 선암사 실무 소임자를 비롯해 강두중 신도회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산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승범 스님은 총림으로서 선암사의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승범 스님은 "총림 운영을 위해 교육공간과 숙박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성보박물관이 2500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기는 협소하여 이를 확충해 세계문화유산의 위상에 맞는 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수행가풍과 관련해 스님은 "선암사의 청규를 회복하여 승가의 수행풍토를 가다듬는 데 진력하겠다"고 주지 소임의 청사진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해 초기불전연구원 보리원 신축불사 낙성

초기불전 역경사 및 전법사 양성
원전강독과 공동번역 실습 진행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목표로 개원한 초기불전연구원 보리원(원장 대림)이 10월 9일 김해 보리원 신축법당에서 신축불사를 회향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개설 초기 보리원은 도량이 좁아 학림 등의 법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물의 누수까지 겹쳐 새로 도량 건립 원을 세워 2015년부터 8년에 걸쳐 부지 마련, 임시법당 마련, 기존 건물 철거, 신축의 과정을 거쳐 초기불전연구원 창립기념일인 10월 9일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새로 신축한 보리원은 대지면적 148평의 3층 건물로 1층은 법당과 종무소, 2층은 식당과 방사, 3층은 접견실과 스님 방사로 구성됐다.

보리원 원장 대림 스님은 "그동안 보리원은 역경도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오며 대중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질문하고 설명하는 법회와 강좌를 개설하던 중 좀 더 많은 불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불사의 염원이 간절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보리원은 역경사 양성 및 원전강독과 공동번역 실습을 진행하고 초기불교 전법사 양성 및 불교대학을 개설하겠다"며 "위빠사나 수행을 비롯해 다양한 명상 주제별 초기불교 수행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국가 평안 기원"…무위사 수륙재 봉행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 법문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명으로 시작된 무위사 수륙대재가 봉행됐다.<사진>

전남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는 10월 7일 경내에서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를 봉행하고, 지역민의 평안과 국가 발전을 기원했다.<사진>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는 세종의 명으로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의 업적을 기리고, 건국에 희생된 고려왕실과 충신들의 넋을 위로하며,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시작된 조선 3대 수륙대재로 평가받는다.

기념식에서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상에 예를 올리는 것은 자손의 번영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이다. 조상은 과거이고, 현재는 나이며, 미래는 자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주지 범오 스님은 "수륙대재는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한자리에 모시고 평등하게 법식을 베풀며 소통하는 장이다"며 "모든 것이 인과로 연결되어 있어 수륙대재를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기원한다"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참가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는 피리독주(국립남도국악원 나영선), 첼로와 해금 콜라보, 춘앵전, 강선영류 태평무, 판소리, 사물놀이, 버꾸춤 등이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상진 스님, 광주전남종무원 방문

10월 6일, 운천사서 간담회
"종단 발전 위한 화합" 강조



지역 종무원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이 광주전남종무원(종무원장 월인)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10월 6일 광주전남종무원 운천사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 발전은 종도들의 주인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종단의 어려움을 수습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대중의 화합을 통해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전남 원로의장 금명 스님, 율사 수진 스님, 종회의장 보응 스님, 수석부회장 연봉 스님 등 50여 명의 광주전남 소속 사찰 주지스님들이 참여했다. 종단에서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능혜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이 참석해 지역 현안 등을 경청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산 베트남 불자 수행처 해원사 개원

주지 프엉 스님 취임법회도
베트남 불자 1500여명 동참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불자들과 주민들의 공동체 역할을 하게 될 양산 해원사가 10월 8일 경내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개원법회 및 주지 틱 느 쩐 프엉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해원사 주지 쩐 프엉 스님은 "해원사가 비구니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선문(禪門)의 종지(宗旨)를 지키는 곳이 되며, 천마산 숲이 보리심을 양성하고 한국 땅에서 베트남 민족의 얼을 지키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양산 해원사는 최초의 베트남 사원인 천안 원오사 종무회의에서 한국 남부지방에 베트남 사원 건립을 발원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공동 쉼터이자 불교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불교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불사를 진행해 이날 완공하게 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익산 관음사, 제6회 공양미 콘서트 개최

쌀 2600kg, 익산시에 전달해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올해 여섯 번째 맞는 익산 관음사 공양미 콘서트는 10월 7일 익산 관음사 청년회에서 주관했다. 이날 모아진 공양미는 2600kg으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전달됐다.

공양미 콘서트에는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의 찬불가 등 합창곡 공연과 관음사 청소년 야단법석 풍물단의 공연, 소리야 난타팀, 불자가수 명현, 윤윤아 등 지역활동 가수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주지 덕림 스님은 "공양미 콘서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심을 심어주고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음사가 도심사찰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명대사 · 독립 애국지사 추모합니다

무봉사, 10월 10일 추모재



밀양 무봉사(주지 천주)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왜적과 싸운 사명대사와 밀양 출신 의열단 김원봉과 75인의 독립지사 추모재 및 제1회 영남루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사명대사의 열반 413주기인 10월 10일 봉행된 추모 다례재는 대웅전과 아랑각에서의 고유제에 이어 추모 법요식이 봉행됐다. 무봉사 영남루 앞마당에서는 아랑장구, 이필호 한국무용, 불자가수 김효원, 최욱, 앙상블 색소폰 연주, 가수 소리새와 채은옥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도 이어졌다.

이날 법회에는 무봉사 주지 천주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미타암 동진 스님, 표충사 진각 스님, 용궁사 정무 스님, 박일호 밀양시장, 정정규 시의장, 안영숙 무봉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토사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10월 8일, 300여명 동참해



울산 정토사불교대학(학장 덕진)이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진>

10월 8일 울산 학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로 22번째로 그동안 정토사불교대학을 졸업한 45기까지의 동문과 주야간반 재학생 300여 명이 동참했다.

달마, 문수, 보현, 관음의 4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계주 달리기 등의 게임으로 구성된 한마음 명랑운동회와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동문들의 화합을 다졌다.

개막식에서 정토사불교대학장 덕진 스님은 "오늘 도반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지중한 인연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탁마(琢磨)할 수 있는 자신으로 가꾸어 가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